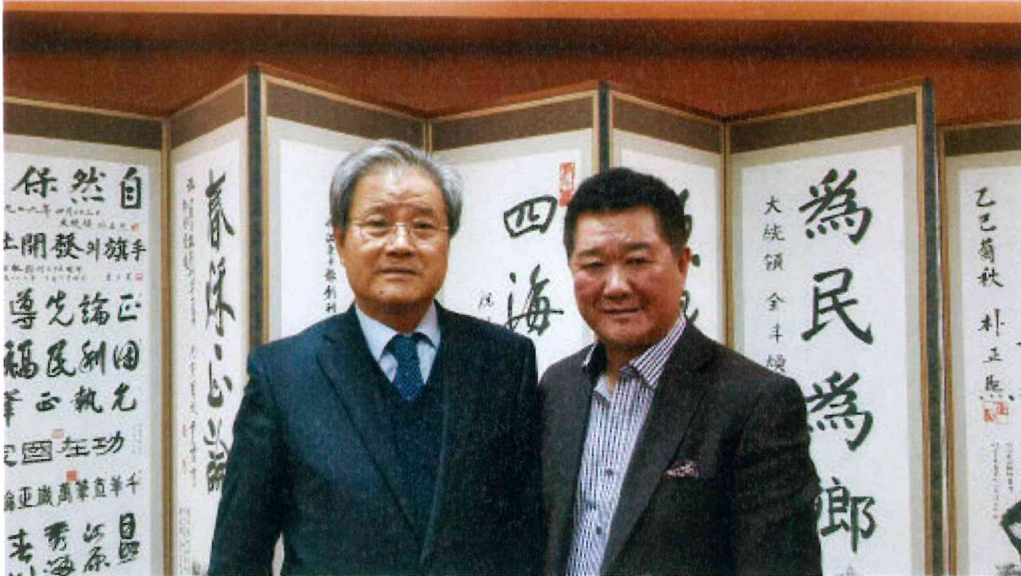


강원일보(<http://www.kwnews.co.kr>) 2018년 12월 8일 기사입니다.

## “도내 업체 해외시장 개척 큰 힘”



<b>한식 레스토랑 등 경영  
우리 문화 알리는데 앞장</b>

북미주 한식세계화총연합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환(69) 미국 뉴욕지구 강원도민회장이 도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 길라잡이 역할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.

강원테크노파크 주관으로 마련된 해외바이어 상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김 회장은 로스팅컴퍼니로움(대표:이동희) 및 영농조합법인 황태마을(대표:김영이)과 미국 수출 계약 협약을 맺는 등 도내 업체의 해외 시장 개척에 힘을 보태고 있다.

김 회장은 미국 뉴욕에서 한식레스토랑 함지박, 죽이야기, 잔치명가 등을 경영하며 식품 무역을 하는 SFI그룹의 대표로, 북미주 한식세계화총연합회장, 머레이힐 먹자골목 상인번영회장 등을 맡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.

춘천 출신으로 초등학교 교사를 지내다 1986년 38세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한국 청소년의 미국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힘쓰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. 최근 자신의 식당에 그룹 방탄소년단과 공연팀이 머물며 식사를 해 입소문이 났다는 일화도 전했다.

7일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 회장은 “도민회장으로서 내년에는 씨름 등 우리 단오문화에 태권도와 한식 등 세 가지를 테마로 한 축제를 뉴욕 한복관에서 개최하고 우리 문화를 알릴 예정”이라며 “여기에 강원도 고유의 공연·전시 문화를 함께 선보일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이에 대해 이희종 강원일보사장은 “멀리 외국에서 남다른 고향 사랑을 보여주는 김 회장을 응원하며, 도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달라”고 밝혔다.

한편 미국 뉴욕지구 강원도민회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도민 사회 소식을 본보에 제공하기로 했다.

최영재기자 yj5000@kwnews.co.kr